

출근길 아수라장... 공장 중단, 시설물 무너져 사상자 발생

수도권 곳곳 교통통제, 차량 멈춰 버스정류장·지하철역 '인산인해'

골프연습장·축사 등 붕괴 잇따라 구조물·나무에 깔려 부상·사망 기아 공장 '중단', LG전자 '축소'

그야말로 출근길은 아수라장이었다. 117년 만에 11월 최고치 폭설로 도로 곳곳에서는 미끄러진 차들이 엉켜 꼼짝달싹 못 했고, 버스, 지하철은 20분 넘게 지연됐다. 쌓인 눈에 전신주와 전선이 무너져 내려 주택 곳곳은 정전이 됐고, 자동차 생산라인 등 공장이 멈춰 섰다. 안타깝게도 60대 노인은 눈을 치우다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다. 인간이 벗어난 기후변화는 폭설로서 인류의 존립에 또 다시 경고했다.

28일 행정안전부와 경찰, 서울시,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들 연속 폭설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곳곳 차로에서 교통이 통제됐다. 미처 월동 장구를 챙기지 못한 차들이 미끄러지거나 오르막길을 오르지 못한 채 비상등을 켜 채 멈춰선 차들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 남측순환로 일대에서 관계자들이 도로를 통제 한 후 폭설로 인해 부러진 나무 등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교통 혼잡을 피해 대중교통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도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지만, 선로에 쌓인 눈이나 나뭇가지 등을 치우느라 열차 출고가 늦어졌다. 서울 지하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 일부 열차의 운행이 20분 가량 지연됐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끊겼다. 항공기의 경우 국제선, 국내선 포함 결항은 111편, 지연은 31편이 발생했다. 제주 바다에도 풍랑경보가 내려지



2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골프연습장 철제 그물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있다. /독자제공

면서 배편 대부분이 끊겼다. 폭설로 인한 인명 피해도 컸다. 경기 평택 골프연습장에서 안전망이 무너지면서 당시 제설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깔렸고, 이 중 1명이 숨졌다. 성남의 골프장에서도 같은 붕괴 사고로 인근 건물에 정전이 발생했다. 경기 용인시의 한 단독주택 앞에서는 60대 노인이 눈을 치우다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다. 쌓인 눈에 지붕 붕괴 사고도 잇따랐

다. 이날 오전 강원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한 우사에서 70대 노인이 무너진 지붕에 깔렸다. 그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젓소 농장 축사도 붕괴돼 젓소 36마리가 자재 더미에 깔렸다. 천안시 입장면 용정리의 한 축사 지붕도 무너지면서 젓소 3마리가 폐사했다. 아울러, 경기 광명시 노은사동의 한 창고 천장이 무너져내려 직원 1명이 부

상당했다. 또, 경기 안양시 동안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붕이 무너져 1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눈폭탄에 공장도 생산라인도 가동을 멈췄다. K8, 쏘렌토 등을 생산하는 기아 오토랜드 화성 1, 2공장은 이날 주간 근무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1공장에 눈이 쌓여 지붕 처짐 현상이 생겼다. 2공장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 작업으로 가동이 멈췄다.

LG전자는 평택 디지털파크 전장 부품 생산라인의 운영을 일부 축소했다. 폭설로 인해 서울과 경기 지역 곳곳에서는 정전이 발생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소재 아파트 2곳에 정전이 돼 120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앞서 새벽에는 화성시 서신면 일대에, 또 화성시 봉담읍 내리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공덕동·성산동 일대 주택 750호에도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날 정전은 폭설로 나무가 전신주 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착륙 후 계류장까지 5시간30분... 비상대책 부재 드러나

Q 르포

인천공항공사 폭설 대응

세계적인 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낯이 폭설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비행기가 착륙한 후에도 계류장(주 기장)까지 진입하는데만 활주로에서 5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관제탑 등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비행기와 주기장까지의 거리는 불과 수십미터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기내의 산소가 부족해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까지 호소하는 등 자칫 위험한 상황까지 연출될 뻔했다. 또 이 과정에서 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안전한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KE442편. 이 비행기에는 250여명이 탑승했다.

비행기는 당초보다 2시간이 늦은 오후 2시께 하노이 노이바이공항을 출발했다. 전날 우리나라 수도권 등에 내린 폭설로 연착이 되면서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KE442는 오후 8시50분께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베트남과 한국의 시차는 2시간이다. 문제는 착륙 직후 발생했다.

활주로를 달리고 있던 비행기에서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현재 다른 비행기가 계류장을 사용하고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 후 안내방송은 "(계류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무한 반복했다. 승무



27일 베트남 하노이발 대한항공 KE442편이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5시간30분 가량을 대기한 후 계류장에 도착했다. /김승호 기자

베트남 공항 출국부터 2시간 지연 인천 착륙 후 승객 250여명 발 묶여 "기다려 달라" 말만, 상황설명 없어 승객들, 원성... 일부 막말·욕설도 기내 산소부족에 '호흡곤란' 호소 "공항·항공 서비스 국제적인 망신"

원에 따르면 기내 방송은 규정상 15분에 한번씩 하기로 돼 있다. 물론 그 사이 비행기는 전혀 미동이 없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자정을 넘어섰다.

비행기에 갇힌 지 3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원성이 높아졌다. 일부는 승무원들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승무원들은 "기장이 관제탑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 좀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다시 1시간이 지났다. 이쪽 저쪽에서 욕설도 들렸다. 한 승객은 "기다리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느냐. 버스 등을 통해 진작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를 높였다. KE442편 객실 사무장 L모씨는 "버스편 등에 대해 공항측에 전달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배차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기장은 4시간이 훌쩍 지나야 방송을 했다. 기장 역시 "기다려 달라"는 짧은 안내가 전부였다.

지칠대로 지친 일부 승객은 112로, 119로 저마다 신고를 했다. 한 승객은 인천공항경찰단에 전화를 했다. 하지만 항공기 내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답변밖에 돌아온 것이 없었다.

비행기가 오래 머물면서 전원도 자주 차단됐다. 이때문에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아 기침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을 겪었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커졌다.

한 승무원은 "저희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우리가) 빨리 퇴근하고 싶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승객들의 원성이 극에 달했을 즈음 비행기가 서서히 움직이더니 계류장에

달았다. 28일 새벽 2시20분께다.

활주로에 내린 비행기가 계류장까지 몇 십미터를 가는데 무려 5시간30분이 걸린 것이다. 이날 하와이에서 출발한 일부 노선은 꼬박 7시간 넘게 기내에서 대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번엔 KE442편이 닿은 235번 게이트가 열리지 않았다. 결국 승무원이 공항공사측과 전화를 하고서야 문이 열렸다. 비행기에서 힘들게 내린 승객들은 이때문에 20여분이 지나서야 공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어렵게 마련한 계류장마저 승객 맞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다른 탑승객은 "이게 인천공항과 대한항공의 서비스냐. 국제적으로 아주 개망신"이라고 혹평했다.

하지만 끝난게 아니었다. 짐 찾은 곳은 그야말로 사람과 짐이 서로 엉켜 아수라장이었다.

KE442편에서 내린 짐을 찾은 곳은 30분이 넘도록 전광판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250명이 넘는 승객들은 자신의 짐을 찾기위해 이리 저리 방황했다. 일부 LCC 항공사에서 관제자가 나와 구두로 짐 찾은 곳을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보이질 않았다.

인천공항공사, 대한항공에 '고객'은 없었다.

한편 2022년 당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를 받았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엔 A로 두 단계 상승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홈페이지에서 "국민의 신뢰 속에서 전 세계 공항을 선도해나가는 초일류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여러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선택 확대 반도체법 제정 지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반도체 기업 연구인력에 대해 노사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열린 반도체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반도체특별법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행법으로도 반도체나 첨단산업은 특별연장근로 방식으로 제가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노사간 합의해야 하고 3개월 이상 안해주기 때문에 하다가 또 동의받고 허가받고 이렇게 너무 힘들어 특별법에서 반도체 업계 상당한 재량까지 할 수 있게 되어야 안 되겠냐"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11일 여당인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연구개발 분야 근로자가 사측과 합의시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제션(R&D인력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핵심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